

앙케이트로 보는 농약 이미지



안전한 우리 농산물 안심하고 마음껏 소비할 것

작물보호협회, 소비자 대상 세미나 영역 넓혀 잇달아 개최

-홍보부-



농산물 및 농약안전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역량을 도십지 여론 주도층에 주력하고 있는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만)가 최근 대상을 초등학교원에게까지 확대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작물보호협회는 최근 농약 및 국내 농산물 안전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중 농약잔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등 아직까지도 농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여론 주도층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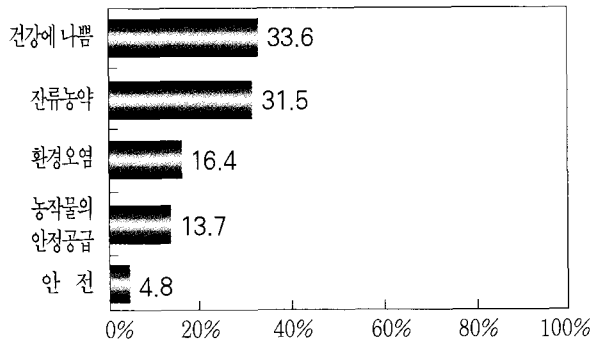
지난 5월 26일 (주)동부하이텍 대전 농생명연구소에서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원 40명을 초청, 농약 개발과정 및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돕는 「농산물 및 농약안전성 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주) 대전공장을 방문, 선진 제조시설 및 생산 장면을 견학 하는 등 교육의 이해 및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일정도 함께 소화했다.

지난 6월 23일에는 청주 한마음웨딩홀에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회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레크레이션을 겸한 2부에서는 강의 내용을 토대로 퀴즈형식의 문답시간을 갖는 등 강의의 대한 집중력을 확인하는 기회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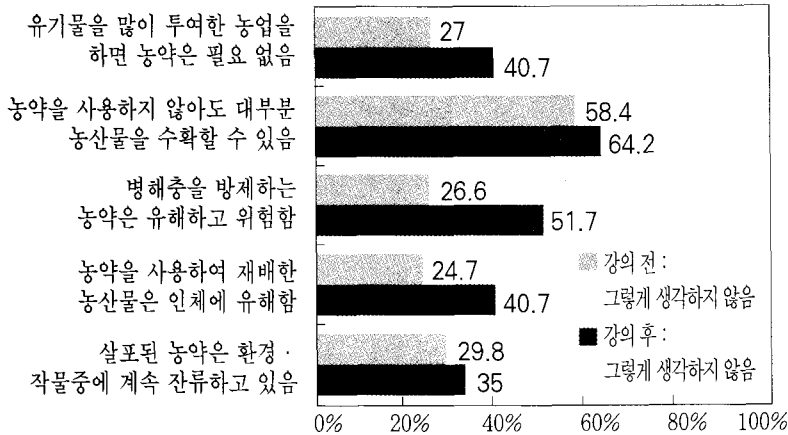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2009상반기 소비자교육 결산으로 농약안전성 세미나 시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결과를 통해 농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를 알아본다.

농약하면 떠오르는 것

이날 농약 및 우리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기 전 농약에 대한 참가자의 인식은 예상대로 부정적 인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세미나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농약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참가자들은 「건강에 나쁨」 「잔류농약」 「환경오염」 등을 꼽아 부정적 인식이 무려 81.5%에 이르렀으며 「농작물의 안정공급」 「안전」은 18.5%에 머물렀다.



농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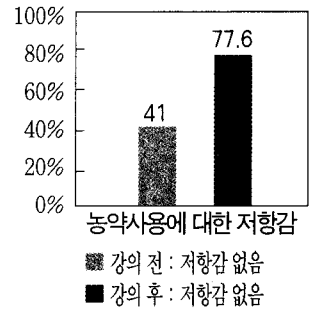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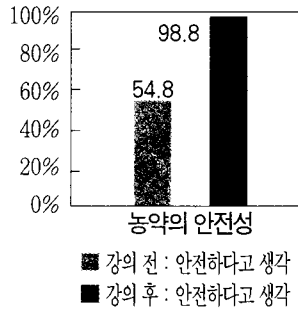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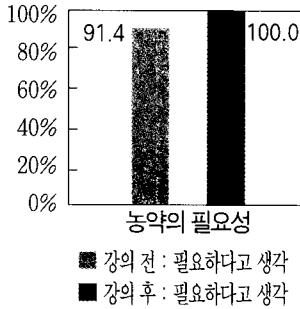
강의 전 농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보면 「농약의 필요성」이나 「수확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인상보다는 「농약으로 재배한 채소는 인체에 유해함」 「병해충을 방제하는 농약은 유해하고 위험」 「살포된 농약은 환경이나 작물 중에 계속 잔류됨」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사용에 대해 부정적 이유

농약사용에 대해서는 강의 전 참가자의 41%가 「부정적이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안전성이 불안하기 때문」이 40%로 가장 많았고, 「자연적으로 재배된 것이 좋기 때문」과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 각각 33.3%, 16.8%, 「특별한 이유 없이 감각적으로 싫기 때문」이 3.3%로 나타나 역시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자의적 판단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의 후에는 3.1%만이 「그래도 화학물질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인식의 변화가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농약의 필요성 · 안전성, 농약사용에 대한 저항감

세미나 참가자의 농약에 대한 이해의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컸다. 특히 농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의전 · 후에 무관하게 모두 공감하고 있었으나 특히 강의 후에는 100%에 이를 만큼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성에 대한 인식도 강의 전 54.8%에서 강의 후에는 참가자 모두가 안전하다고 답했다. 농약사용에 대한 저항감은 강의 전 41%에서 강의 후에는 77.6%가 없어졌다고 답해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 저항감 불식에 도움이 되는 내용



강의 후 참가자들은 농약에 대한 불안감이나 저항감 불식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충이나 병 때문에 대부분 수확 할 수 없다」 「등록 농약은 사용방법을 지켜서 사용하는 한 안전」 「살충 · 살균 · 제초가 농약사용의 구체적인 목적」 「목적하는 병이나 해충에 주 포인트 농약을 사용」 「사람의 몸속에 들어온 농약은 위나 간에서 분해되어 인체에 남지 않음/농약의 잔류 시간이 짧다」 「등록 농약보다도, 채소 자체가 지나고 있는 자기 방어를 위한 독성이 높은 경우도 있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반복시험을 통해 합격한 것만 등록」 「제초제는 농업 노동의 경감과 생산성 향상에 공헌」 「농약은 체내에 잔류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영향을 없다」순으로 대답했다.

세미나 및 공장견학 후의 인식 · 행동변화

농약 세미나 및 제조시설 견학 후의 인식변화가 대단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농약에 대한 불신감이 긍정적으로 바뀜」 「농약은 농산물 생산량 증대와 노동력이 절감됨을 이해 함」 「농약을 처리하지 않은 채소에는 가해 흔적이 많이 남음」 「세척과 조리를 통해 잔류농약이 많이 소멸됨」 「농약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됨」 「안전한 우리 농산물 안심하고 마음껏 구입할 것임」 등의 긍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쉽게 기존 인식전환이 어렵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다양한 홍보 필요함」 등의 의견도 있었다. Y